

청렴 상식이 쑥쑥!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사지(四知)



후한시대 관서지방 사람 양진(楊震, 54~124)은 젊어서부터 학문에 밝고 인품이 높아 '관서의 공자'라 불렸으며 청렴한 생활로 태수의 벼슬까지 올랐습니다.

그런 그에게 하루는 창읍의 현령인 왕밀이 찾아와 과거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천거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소매 속에서 황금 열 근을 내놓았습니다.

양진은 점잖게 거절하며

"자네의 학식과 인품으로 추천한 것일세, 자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는가? 나라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 내게 보답하는 길일세" 라고 하였으나 왕밀은

"이것은 다만 제 성의입니다.

지금은 늦은 밤이고, 방 안에는 우리 둘 뿐이니,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"

라며 재차 권하였습니다. 이에 양진은

"하늘이 알고, 땅이 알고,
그대가 알고, 내가 아는데
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가!"

天知·地知·子知·我知(四知), 何謂無知
- 천지·지지·자지·아지(사지), 하위무지 -

라며 그를 나무랐고, 왕밀은 부끄러워 하며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.

잠시 타인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
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.

또한 스스로 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
꼭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.

'누굴가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
진정 청렴한 삶이 아닐까요?'



상식이 쑥쑥! 선물이 팡팡! 퀴즈 이벤트



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~!

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세노폰을 통해 후대 사람들에게 **군주의 거울**이 될 **최고의 모델**로 제시되었으며, 부하들과 같은 위치에서 소통하며 공감하는 **파토스의 리더십**을 실천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은 **이 사람은 누구일까요**

① 키루스

② 람세스

* 힌트 : Monthly청렴 6월호를 참고하세요~

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**10명**을 추첨하여 **문화상품권(2만원 상당)**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.
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

★ 응모기간 : 2019. 7. 22.까지

★ 응모방법 : 700spo69a@spo.go.kr

지난 6월 정답은

① **세계 행복 보고서** 였습니다.

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
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^^



**축!
당첨**

안영준(서울북부), 류나경(부산서부), 박지은(서울남부),
반태수(춘천), 이강화(서울서부), 안정은(성남),
최지현(여주), 강가람(마산), 이윤정(천안), 한수호(외부)



민원인의 목소리

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

문건을 접수할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응대를 합니다. 모두에게 잘할 순 없으나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라도 최소한 친절하게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.

여러 민원인을 상대하며 서류 확인에 집중하다 의도치 않게 보여진 모습일 수 있겠지만, 한번쯤 민원인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.

친절하게 해주어 필요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. 법적으로 의문나는 것도 질문했는데 하나하나 가르쳐주어 참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매우 고맙습니다.

친절과 충분한 안내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선사한 목포지청
열람등사(확정등) 담당자에 대한 칭찬의견입니다~ ^^*

